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2025
가을호

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시와 수필, 한 줄의 문장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묻혀 있던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 지나간 사람의 온기,
다시 붙잡고 싶은 삶의 순간들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문장이 되어 돌아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편 한 편의 글이 모여 온주문학 4호를 열었습니다

이번 호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후원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발간사」 중에서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2026
봄호

온주문학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세상에 문학의 씨를 뿌립니다
온주문학은

2026
봄호

온주문학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2025
가을호

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시와 수필, 한 줄의 문장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묻혀 있던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 지나간 사람의 온기,
다시 붙잡고 싶은 삶의 순간들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문장이 되어 돌아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편 한 편의 글이 모여 온주문학 4호를 열었습니다

이번 호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후원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발간사」 중에서

값 15,000원



ISBN 979-11-94392-63-7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2026
봄호

온주문학

온주문학 제4집
Vol. 04

돌아나다

세상에 문학의 씨를 뿌립니다
온주문학은

2026
봄호

온주문학